

고려아연, 제련마진 상승으로 “호조”

한국투자증권, 3월 TC 톤당 300달러 달해 ... 목표주가 13만2000원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고려아연에 대해 제련마진 상승분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10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봉기·양은정 애널리스트는 “정광의 공급여건이 개선되면서 3월 제련마진(TC)이 톤당 300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애널리스트는 “1/4분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아연가격과 Spot TC로 아연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 하락효과가 대략 6억원 정도 발생하나 Spot TC가 2006년 4/4분기 톤당 135달러에서 203달러로 68달러 상승함에 따라 50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TC 상승을 반영해 2007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예상치 5830억원에 목표 EV/EBITDA(기업가치/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 4.3배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두 애널리스트는 “우수한 사업모델, 규모화 효과, 기술 및 제련설비의 우수성은 물론, 아연의 수퍼사이클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3년간 7000억원의 현금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6>